

## ‘전후’에 대한 한일문학사 인식 비교 - 한국전쟁을 둘러싼 상반된 해석과 담론 -

조 정 민

(부경대학교 조교수)

### ◆ 국문초록

이 글은 한국과 일본의 문학사 기술에서 ‘전후’라는 개념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비교 고찰한 것이다. 일본문학사에서 ‘전후’는 제2차 세계대전(아시아태평양전쟁)종결 이후를 의미하는 반면, 한국문학사에서는 주로 ‘한국전쟁 이후’를 가리킨다. 서로 다른 전쟁 이후를 가리키면서도 양국에서는 동일하게 ‘전후’라는 용어를 사용한 탓에 ‘전후’에 관한 이해에서 혼선이 빚어졌고, 특히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하여 양국에서는 완전히 상반된 전후를 상상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한국전쟁은 한국문학에서는 전후의 출발을 의미했지만 일본문학에서는 전후의 종언을 알리는 분기점이 되어 매우 대비적인 효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그러나 양국이 전경화시킨 ‘전후’란 각국의 서사 전략 혹은 담론의 정치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양국이 ‘전후’ 담론을 통해 달성하려 했던 과제가 무엇이었는지 점검해 보면 서로 다른 두 ‘전후’의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은 당장에 노정된다. ‘전후’에 내재된 이데올로기의 해체는 일국사, 일국 문학사에서 ‘전후’를 해방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며 한일문학사에서의 ‘전후’ 인식 비교와 교호 가능성 탐색도 그러한 작업의 일단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전쟁, 전후, 일본 전후문학사, 한국 전후문학사

## I. 서론

시간적 의미로 파악할 때 일본에서 말하는 ‘전후’란 제2차 세계대전(아시아태평양전쟁)종결 이후를 말한다.<sup>1)</sup> 그 ‘전후’의 시기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1956년 경제백서의 ‘더 이상 전후가 아니다(もはや「戦後」ではない)’는 선언적 문구를 참고한다면 1950년대 중반에 이미 일본은 전후에서 벗어나 ‘전후 이후’를 살고 있는 셈이 된다. 사실 ‘전후’라는 용어가 일본 사회에서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전쟁 이후’라는 새로운 시간의 시작을 말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전쟁과 패전, 그리고 피점령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역사로 말미암아 배태된 소실과 붕괴, 빈곤과 혼란, 개혁과 변화, 재건과 부흥 등, 다양한 층위의 의미망을 내포하고 있기에 ‘전후’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일본 사회에서 중요한 시간으로 다루어져 오고 있다. 해가 거듭될 때마다 ‘전후 N년(2018년은 전후 73년)’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전후를 기점으로 한 일본적 시간의 흐름을 대변하는 하나의 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적 시간으로서의 ‘전후’는 한국에도 전유되어 사용되었다. 적어도 한국문학사에서는 그러했다. 한국문학사에서 ‘전후’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해방 이후이지만 그것은 주로 ‘한국전쟁 이후’를 상징하는 것이 보통이었다.<sup>2)</sup> 문제는 서로 다른 전쟁 이후를 가리키면서도 동일하게 ‘전후’라는 용어를 사용한 탓에 일본에서 사용하는 전전 또는 전후라는 개념과 불가피하게 겹쳐지는 지점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 한국전쟁이 갖는 독자적인 성격과

1) 물론 ‘전후’의 시작을 언제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하다. 소위 천황의 옥음 방송으로 일본의 항복이 분명해진 1945년 8월 15일을 그 기준으로 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같은 해 8월 23일 사할린 전쟁의 종결이 그 시작이라는 의견도 있으며, 1952년 4월 28일까지 이어진 미군에 의한 점령기간에는 독립국이 아니었으므로 점령 이후를 전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더 나아가 1972년 5월 15일 오키나와의 본토 복귀 이후를 전후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으며, 오키나와에서는 미군 기지를 비롯한 각종 군사 시설로 인해 지금까지 준전쟁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아직까지 전후라는 시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2) 박현수, 「한국문학의 ‘전후’ 개념의 형성과 그 성격」, 『한국현대문학연구』 제49집, 2016, 304-305쪽.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겨났다.<sup>3)</sup> 여기에 더욱 사정이 복잡해지는 것은 한국전쟁이 가지는 독특한 성격과 의미를 추출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기준으로 전후문학의 가치와 성격을 변별해 내고자 하는 해석 주체의 '당위'와는 별개로, 당시의 문학가들에게 이 용어가 수입 유통되던 당대의 맥락이라는 '실재'는 그것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패전 이후 일본의 문단과 사상계에 등장한 '전후', '전후문학' 등의 기호에 투입된 의미의 중층성 혹은 그것의 일본적 화용(活用)이 남기는 의미의 흔적에서 문학가들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을 터이기에, 한국문학에서 '전후' 혹은 '전후문학'이라는 기호는 '한국전쟁 이후'라는 1차적인 기의 외에도 '아시아태평양전쟁 이후'라는 일본적 기의와 '2차 대전 이후'라는 구미의 기의가 혼용되어 있는 중층적인 개념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sup>4)</sup>

위와 같은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2000년대에는 '전후'라는 시간을 보다 중층적, 연속적으로 파악한 연구들이 제출되었다. 예컨대 권명아의 『식민지 이후를 사유하다-탈식민화와 재식민화의 경계』(책세상, 2009)나 한수영의 『전후문학을 다시 읽는다』(소명출판, 2015)는 그 대표적인 성과로, 전자는 "2차 세계대전의 체험을 전쟁의 체험이 아닌 식민지 경험으로 환원하고 이른바 '전후'의 개념에서 삭제함으로써 '한국인'을 전쟁에 개입된 자가 아니라 식민 지배의 피해자의 위치로 단일화하는 효과"를 거두어 온 '전후' 담론을 비판적으로 점검하였다. 후자의 경우는 이중 언어, 관전사(貫戰史)와 기억, 식민화된 주체라는 세 가지 방법론을 통해 한국전쟁이 아시아태평양 전쟁이나 중일전쟁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는지를 살핀 것이다. 식민주의의 영향과 흔적을 고스란히 담은 언어와 주체, 기억은 한국전쟁의 의미를 아시아태평양전쟁을 통해 전경화시키는데, 바로 이러한 대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후 한국사회는 식민지 시대와 전후를 관통하는 통시기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한수영의 주장이다. '전후'라는 시간을 한국전쟁 이후로 규정짓지 않고 아시아태평양전쟁, 나아가 2차 세계대전이라는 맥락으로까지 소급하여 그 영향관계나 인과관계를 추적하고 있기 때문

3) 한수영, 『한국 현대비평의 이념과 성격』, 국학자료원, 2000, 7쪽.

4) 한수영, 『전후문학을 다시 읽는다』, 소명출판, 2015, 34쪽.

에 이들 연구는 한국적 ‘전후’의 의미가 일국사에 국한되지 않고 일본과 동아시아, 더 넓게는 세계에 접속하도록 이끈다.

그런데 이렇게 은폐된 전후를 복원하여 전후라는 시대를 바라보는 스펙트럼을 넓혔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전후’라는 담론이 초래한 효과 혹은 작용에는 다소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결론을 미리 언급해 두자면 한국전쟁이라는 사건은 한국문화사와 일본문화사에서 매우 대비적인 효과를 초래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연구 관점이 다소 정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문화사에서 ‘전후’는 오랫동안 한국전쟁 이후를 의미해 왔다. 다시 말해 ‘전후’의 시작을 한국전쟁 이후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이다. 이에 반해 일본문화사의 경우에는 빠르기는 1949년부터, 적어도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시점부터 ‘전후’의 종언을 선언하고 있었다. 한 마디로 말하면 한국전쟁은 한국문화에서는 ‘전후’의 출발을, 일본문화에서는 전후의 종언을 알리는 분기점이 되는 셈인데, 이렇게 서로 다른 ‘전후’ 인식은 오늘날의 한국과 일본의 전후 담론을 대변한다는 점에서도 그 검토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한국전쟁을 분기점으로 한일 양국이 어떠한 전후문학사를 기도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한국전쟁과 일본 전후문학의 종언

한일문화사에서 한국전쟁은 ‘전후’의 출발과 ‘전후’의 종언을 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비교 검토해야 할 사건이자 시간이다. 일본에서 ‘전후’라는 시간의 모드가 전환된 계기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면서 중국 대륙의 공산화가 본격화되고 그에 따라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급선회하면서 소위 냉전 구도가 뚜렷해 진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예컨대 패전 직후 비교적 일찍 문학 활동을 재기했던 그룹 『근대문학(近代文學)』<sup>5)</sup>파의 동인

5) 패전 직후인 1945년 가을, 혼다 슈고(本多秋五), 히라노 겐(平野謙), 야마무로 시즈카(山室静), 하나야 유타카(埴谷雄高), 아라 마사히토(荒正人), 사사키 기이치(佐々木基一), 오다기리 히데오(小田切秀雄) 등 7 명의 동인이 모여 만든 근대문

아라 마사히토(荒正人)는 좌담회 「현대와 지식인(現代と知識人)」(『近代文學』 1950.05)에서 “대체적으로 1949년에 전후라는 시대가 일단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1950년에 들어와서는 “특히 강화문제나 혹은 그에 부수하는 혹은 그것과 어딘가 연결되어 있는 내외의 정세에 따라 지식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문제가 [...] 절실한 첫 번째 과제”가 되었다고 이야기한 바 있었다.<sup>6)</sup> 아라 마사히토는 1949년에 성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의 존재를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고 이어 1950년대부터 정치적, 국제적 과제로 부상했던 미일강화조약을 거론하며 냉전 구도를 일종의 전후의 종언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더 전후의 종언을 피부로 느끼게 해 준 사건은 바로 한국전쟁의 발발이었다. 한반도로 옮겨 붙은 전화가 어찌면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일본은 새로운 전쟁의 시작은 곧 자신들의 전후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라 여겼다. 예컨대 평론가 나카무라 미쓰오(中村光夫)는 “한국의 병란이 제3차 대전 유발의 위기를 낳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여파로 “이른바 ‘전후’의 시대가 일단 끝났다는 기분에서 비롯된 새로운 기운도 미약하나마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분석하며 한국전쟁이 전후의 시대를 끝내게 만든 신호탄임을 지적한 바 있었다.<sup>7)</sup> 한국전쟁을 분기점으로 하여 전후 일본사회의 분위기가 전환되었다고 인식하는 경향은 다음에서 소개하는 문학사 기술에서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일본의 1950년을 획기적인 해로 만든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코민포름의 일본 공산당비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전쟁의 발발이었다.(사실 양자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대다수의 일본인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일본의 문학자들에게도 청천벽력처럼 갑작스럽게 닥쳐

---

학사(1946년 1월 동인지 『근대문학』 창간)는 전후에 비교적 일찍 문학 활동을 재기했던 그룹으로 이들은 문학자의 전쟁 책임이나 전향문제,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문학 운동 등을 축으로 하여 전쟁과 전후에 관한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6) 本多秋五・森有正・日高六郎・佐々木基一・野間宏・関根弘・亀島貞夫・荒正人, 「座談会—現代と知識人」, 『近代文學』 No.42, 1950, 41쪽.

7) 本多秋五, 『物語 戦後文学史』, 新潮社, 1966, 403-404쪽 재인용.

왔다. [...] 코민포름 비판과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1950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전후의 종언’이 각 분야에서 일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확인되었던 해였으며, 문학 분야도 그 시점을 경계로 하여 변모하게 되었다.<sup>8)</sup>

1950년 즉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이 해에 전후문학이라는 것이 일단 문학적인 운동으로는 종언을 고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후는 새로운 혼란 내지는 새로운 창조의 시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연대적 구분으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sup>9)</sup>

전전과 전중의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민주적 개혁이 점령군의 손에 의해 단숨에 이루어졌다. 당시에 도쿠다 규이치(徳田球一) 등 공산당 간부들이 점령군을 해방군으로서 환영한 것도 아주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군사적, 전체적이던 낡은 일본이 통째로 뒤집히는 건 아닐까 싶었다. 그러나 패전 직후의 폭풍우와도 같은 민주적 혁명은 1947년 이른바 2.1 총파업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 처음으로 좌절되었고,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거의 완전하게 중지부를 찍었다. [...] 한국전쟁의 발발과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로 접어들면서 전후 사회와 전후문학은 일당락되었으며 다음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sup>10)</sup>

위에 소개한 인용문은 모두 한국전쟁을 ‘전후’의 종언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 계기를 발견하는 과정은 다소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혼다 슈고(本多秋五)가 쓴 『이야기 전후문학사(物語 戦後文学史)』(新潮社, 1966)에서 발췌한 첫 번째 인용문은 코민포름의 일본공산당 비판<sup>11)</sup>과 한국전쟁

8) 같은 책, 406쪽, 593쪽. 당시의 일본에서는 한국전쟁을 조선전쟁 혹은 조선동란으로 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인용문의 번역에서 한국전쟁이라 옮겨도 문맥이나 논지를 크게 흐트리는 바가 없기에 한국전쟁이라 통일하도록 하겠다. 이하의 인용문도 마찬가지이다.

9) 本多秋五・安部公房・梅崎春生・佐々木基一・野間宏・椎名麟三・荒正人・平野謙, 『座談会—戦後文学の総決算』, 『近代文学』 第8巻 第1号, 1953, 1쪽.

10) 平野謙, 『昭和文学史』, 筑摩書房, 1963, 253-254쪽, 260쪽.

11) 당시 일본공산당 의장 노사카 산조(野坂参三)는 연합군을 해방군으로 평가했고 ‘점령 하의 평화혁명론’이라는 노선을 취했다. 그러나 1950년 1월 6일 코민포름 기관지는 「일본의 정세에 대하여(日本の情勢について)」라는 글을 통해 일본의 정세 및 일본공산당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일주일 뒤 일본공산당 정치국은 「일

을 연결시킨 시대인식, 다시 말해 냉전 구도의 본격화와 한국전쟁 사이에서 일본의 '전후'의 종언을 인지하고 있으며, 아라 마사히토와 히라노 겐(平野謙)이 각각 쓴 두 번째와 세 번째 글은 패전 이후와 한국전쟁 발발 사이를 일종의 문학적인 운동의 시기, 혹은 민주적 혁명의 시기로 규정하며 운동이나 혁명의 계기가 소실되는 지점으로서 한국전쟁을 위치지우고 있다. 그러나 히라노 겐이 소위 2.1 총파업의 실패<sup>12)</sup>와 한국전쟁의 발발을 동일선상에서 인식하고 있는 데에서 추찰할 수 있듯이 히라노 겐 역시 혼다 슈고와 마찬가지로 동서 대립, 혹은 냉전 구도라는 세계사적 정세를 염두에 두고 일본의 '전후'의 종언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점령군에 의해 비군사화와 민주화라는 목표가 설정되었기는 하나, 일본인의 손으로 주체적인 전후 혁명이나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좌절, 혹은 체념과도 같은 심정이 내재되어 있었다.<sup>13)</sup> 아무튼 냉전 구도의 본격화와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킨 한국전쟁의 발발은 과거의 전쟁의 끝과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으로 읽혔고 그 속에서 일본은 '전후'의 종언을 예감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은 전후 일본에 이른바 '조선 특수(朝鮮特需)'라는 경제적 효과를 거두게 만들어 전후 일본의 재건과 부흥을 견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무엇보다 이 경제적 효과와 그에 따른 문화적 변화는 '전후'의 종언을 더욱 현실적인 사정으로 인식하게 했다.

---

본의 정세에 대하여'에 관한 소감('日本の情勢について'に関する所感)이라는 제목으로 코민포름의 비판에 대한 반박문을 발표하였다. 이후 중국 공산당까지 일본공산당 비판에 나서자, 당 내부는 이른바 '소감'에 동참하는 '소감파'와 중국 공산당 및 코민포름의 의견에 동의하는 '국제파'로 분열되었다.

12) 1947년 1월 1일,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수상이 노동조합에 대한 불신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노조는 총파업 실시를 결정한다. 총파업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미 점령군은 철도 파업 등이 미군에게 군사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총파업을 저지시키려 했다. 이 과정에서 총파업을 지휘한 위원장은 GHQ에 의해 강제 연행되어 NHK 라디오를 통해 파업 중단을 직접 발표해야 했고 점령 정책 방해죄로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1 총파업의 중단은 일본의 민주화를 추진해 온 GHQ의 방침 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다. 노동자 권익의 향상을 주장하면서도 점령 정책에 저촉할 경우 혹은 공산당의 영향력이 개입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철저히 단속하거나 응징하였기 때문이다.

13) 호쇼 마사오 외, 앞의 책, 266쪽.

한국전쟁은 직접적으로 문학과 무관했다. 이는 당시의 문학사 연표를 보아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가져 온 ‘특수’ 봄은 도지 라인<sup>14)</sup>의 강행에 의해 마취 없이 큰 외과 수술을 받다가 숨이 끊어지려 하던 일본 경제에 마치 ‘가뭇의 단비’와 같은 효과를 가져왔고 그 후의 일본 경제의 번영과 사회생활의 변화를 만들어 낸 계기가 되었다. 문학은 사회생활의 변화와 함께 그 모습도 변해갔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전쟁은 전후문학사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sup>15)</sup>

1950년에는 시시 분로쿠(獅子文六)의 「자유학교(自由學校)」(『아사히(朝日)』 5-12)가 호평을 받았고 요시카와 에이지(吉川英治)의 「신·헤이케 이야기(新·平家物語)」가 『주간 아사히(週刊朝日)』에 연재된 것을 비롯하여 이토 세이(伊藤整)가 번역한 『체털레이부인의 사랑(チャタレイ夫人の恋人)』이 엄청난 판매고를 올렸으며 또 『소설 신초(小説新潮)』(1947.9 창간)와 더불어 중간소설 잡지 『소설공원(小説公園)』(1950.3)이 창간되었다. 1951년에는 『人間(인간)』과 『전망(展望)』이 결국 폐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전쟁 발발에 따른 ‘전후의 종언’과 무관하지 않다.<sup>16)</sup>

한국전쟁의 발발은 나라 전체로 보자면 부실한 경제 전체를 윤곽하게 만드는 소위 특수 경기를 일으켰다. 이른바 상대적 안정기가 강화조약 조인 후의 ‘역 코스’와 중첩되면서 시작된 것이다. 문학계에서도 한편에서는 민주주의 문학의 혼란을 통일하듯 국민문학론이 주장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상대적 안정기에 맞추어 ‘제3의 신인’이 진출했다. 노마 히로시(野間宏), 시이나 린조(椎名麟三)등 제1차 전후파로 불리는 작가들에 이어 다케다 다이준(武田泰淳), 훗다 요시에(堀田善衛)와 같은 제2차 전후파 작가들이 등장한 이후, 그들 난세의 영웅들이 개척한 경도를 부분적으로 정지하는 역할을 제3의 신인들이 맡게 된 것이다. 야스오카 쇼타로(安岡章太郎), 요시유키 준노스케(吉行淳之介), 엔도 슈사쿠(遠藤周作), 고지마 노부오(小島信夫), 쇼노 준조(庄野潤三), 미우라 슈몬(三浦朱門), 고야마

14) Dodge line. 미국의 은행가 J.도지가 1949년에 내건 일련의 일본 경제 재건책. 이는 당시 요시다 내각 경제 정책의 주요 골자가 되었다.

15) 本多秋五, 앞의 책, 526쪽.

16) 같은 책, 1966, 531쪽.



기요시(小山清), 아가와 히로유키(阿川弘之) 등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sup>17)</sup>

제4차 경제백서에서 보듯이 1949년은 ‘종전 후 일본 경제가 실질적으로 질적 전환을 이룬 해’였다. 이듬해 6월에 시작된 한국전쟁을 계기로 특수 경기가 일어나 일본 경제는 급속한 부흥과 발전을 실현해 나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독점자본주의 체제의 재건과 군사기지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또한 맥아더의 지령으로 경찰예비대가 창설되고 해상보안청의 인원이 8천 명 증원되어 재군비가 시작되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맥아더는 『아카하타(赤旗)』의 발행 정지와 일본공산당전중앙위원의 추방을 명령하고 저널리즘 관계자 외에도 각계에 레드 퍼지(red purge)를 개시, 확대해 나갔다. 사람들은 냉전 하의 국제 정세 속에 놓인 일본의 현실을 한동안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만 했다. 1949-1950년은 확실히 전후 일본 역사의 변곡점이었다.<sup>18)</sup>

위의 인용문은 모두 한국전쟁의 경제적 효과가 문학계 혹은 사상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한국전쟁이 전후 일본 문학계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은 경제적 효과가 파생시킨 문화적인 변동, 다시 말해 중간소설로 분류되는 대중 문학과 대중문화를 확대 재생산시키는 동력이 되었고, 문단에서도 전후문학의 관념성과 실험성과는 일선을 그으며 보다 일상적이고 생활적인 감각과 의식을 꿰뚫고자 하는 ‘제3의 신인’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 공통된 분석 내용이다. 나아가 한국전쟁은 사상계를 극단적으로 양분하고 특히 공산당계 언론을 더욱 철저하게 규제, 단속, 엄벌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공산주의자 추방을 의미하는 이른바 레드 퍼지는 정부기관이나 언론은 물론이고 민간기업 부문으로까지 확대되어 1만 972명이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산주의자 추방과는 대조적으로 1951년 1, 2차에 걸쳐 군국주의자 등의 공직자는 추방에서 해제되었는데, 여기에는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를 비롯한 정·재계 거물급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또한 전쟁에 참여했던 전직 군인도 추방에서 해제되어 경찰예비대로 입대하기 시작했다. 이와

17) 平野謙, 앞의 책, 264쪽.

18) 松原新一·磯田光一·秋山駿, 『戦後日本文学史・年表-現代の文学 別巻』, 講談社, 1978, 113-114쪽.

같이 한국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일본에서는 전쟁 청산이 중단되었고 이는 정치, 경제 나아가 문화적으로 ‘전후’의 종언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전후’의 종언은 전후문학의 종언과도 같은 의미를 지녔는데 이러한 변화들은 ‘조선특수’라는 경기 호황의 시기와도 중첩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하고 싶은 부분은 ‘전후’의 종언의 계기를 세계적인 정세, 다시 말해 냉전과 한국전쟁이라는 국제적인 변화 속에서 찾으려 하는 다수의 일본 전후문학사 기술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이다. 애초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한 역사 기술이 불가능하듯이 문학사 기술 역시 다분히 이데올로기적인 효과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표상 정치 행위의 일종이다. 사실 혼다 슈고는 “한국전쟁은 직접적으로 문학과 무관했다”며 한국전쟁의 방점을 “일본 경제의 번영과 사회생활의 변화를 만들어 낸 계기”에 두려 했지만, 전후 일본문학이라는 장에서 한국전쟁이라는 소재가 완전히 모습을 감춘 것은 아니었다. 혼다 슈고가 자신의 저서 『이야기 전후문학사』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훗다 요시에의 「광장의 고독(広場の孤独)」과 다케다 다이준의 「풍매화(風媒花)」는 한국전쟁과 매우 밀접한 작품이다. 전자는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서 어떠한 진영에도 가담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는 주인공의 심리를 다룬 것으로 작품의 제목은 좌우 대립이라는 ‘광장’ 속에서 결국 ‘고독’을 선택하는 주인공의 입장을 대변한다. 후자는 한국전쟁에 쓰일 무기를 제조하는 공장을 배경으로 한국전쟁과 같은 난세적 상황이 개인의 일상과 안정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실제로 후루바야시 다카시(古林尚)와 사토 마사루(佐藤勝)가 공동으로 집필한 『전후의 문학-현대문학사(戦後の文学-現代文学史)』(有斐閣, 1978)는 ‘집령에 대한 자각과 제2차 전후파’라는 소제목 하에 다케다 다이준의 「풍매화」와 훗다 요시에의 「광장의 고독」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미국에 의한 피점령, 동서 대립, 일본의 역코스 등을 염두에 두고 그 가운데 한국전쟁을 위치지운 이 같은 문학사 기술은 한국전쟁이 단순히 일본의 ‘전후’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한 냉전 구도 하에 한반도는 물론이고 일본 역시 강력하게 포박되어있음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다.<sup>19)</sup>

19) 古林尚・佐藤勝, 『戦後の文学-現代文学史』, 有斐閣, 1978, 62-63쪽.

참고로 2012년 슈에이샤(集英社)가 기획한 ‘전쟁×문학(戦争×文学)’ 시리즈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서 한국전쟁은 일본의 ‘전후’가 가지는 사상적 의미를 완전히 전회시켜버리는 계기로 강조될 필요가 있었을까.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의 언급을 빌리자면 일본 사회에서 ‘전후’는 “기성 사회질서와 가치관의 붕괴에 따른 일체의 혼란을 가리키면서 연속한 시간상의 구분이 아니라 질적으로 전 시대와 다른 자각적인 단절 의식”을 가리킨다.<sup>20)</sup>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패전으로 인한 일본인의 해방감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일체의 과거와 절연을 선고하며 새로운 운동을 전개”하려는 의지에 더욱 가까운 것이기도 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전후’란 패전 일본이 극복해야 할 정신적인 과제였고 가능하다면 한시라도 빨리 선결되는 것이 바람직한 과제였다. 특히 경제적인 부흥과 재건을 통해

---

운데에는 ‘조선전쟁(朝鮮戰爭)’도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소설로서 김석범(金石範)의 「까마귀의 죽음(鴉の死)」(『문예수도(文藝首都)』 1957.12), 장혁주(張赫周)의 「눈(眼)」(『문예(文藝)』 1953.10), 기타 모리오(北杜夫)의 「부표(浮漂)」(『문예수도』 1958.9), 히노 게이조(日野啓三)의 「무인지대(無人地帯)」(『문학계(文學界)』 1975.3), 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의 「사서의 죽음(司書の死)」(『신일본문학(新日本文學)』 1954.8),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의 「검은 바탕의 그림(黒地の絵)」(『신초(新潮)』 1958.3-4), 김달수(金達壽)의 「손영감(孫令監)」(『신일본문학』 1951.9), 시모무라 치아키(下村千秋)의 「통한가도(痛恨街道)」(『소설 신초(小説新潮)』 1951.9), 다나카 고미마사(田中小実昌)의 「상륙(上陸)」(『신초』 1957.12), 사타 이네코(佐多稲子)의 「차륜의 소리(車輪の音)」(『문학계』 1954.3), 고바야시 마사루(小林勝)의 「가교(架橋)」(『문학계』 1960.7), 노로 구니노부(野呂邦陽)의 「벽화(壁の絵)」(『문학계』 1966.8), 사키 류조(佐木隆三)의 「기적의 도시(奇蹟の市)」(『문예』 1967.12) 등이 소개되어 있다. 남상욱은 위에 소개한 일부 작품을 대상으로 일본 전후문학이 한국전쟁을 다루어 온 양상을 분석한 바 있다. 그는 일본 전후작가들의 한국전쟁 인식이란 소극적 평화주의를 표방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전후 민주주의’의 허약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지적하였다.(남상욱, 「전후 일본문학 속의 ‘한국전쟁’ - 한국전쟁과 전후 일본의 내셔널 아이덴티티, 『비교한국학』 23권 1호, 2015, 33쪽.)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른바 순문학과 대중문학 사이에 위치하는 ‘중간소설’이라 불리는 장르 가운데는 예컨대 히사오 주란(久生十蘭)의 「모자상(母子像)」(『부인공론(婦人公論)』 1955.7)이나 후지와라 신지(藤原審爾)의 「죽여버리겠어(殺してやる)」(『藤原審爾作品集 第4巻』 森脇文庫 1958 수록)와 같이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국 병사들의 주둔이 늘어남에 따라 미군기지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 혹은 풍속을 다룬 소설들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들 작품은 점령국 미국과 피점령국 일본 사이에 만들어진 지배적인 젠더 구조가 한국전쟁을 매개로 더욱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었다.(조정민, 「한국전쟁’이라는 사건, 『만들어진 점령서사』, 산지나, 2009, 119-123쪽.)

20) 『竹内好全集 第7巻』, 筑摩書房, 1981, 246-247쪽, 259-260쪽.

이른바 ‘상대적 안정기’를 찾을 수 있게 만든 한국전쟁은 일상적 차원에서 ‘전후’의 종언을 감각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패전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찾아 온 ‘전후’ 종언의 계기, 즉 한국전쟁은 일본으로 하여금 냉전의 시간을 전후의 감각으로, 아니 전후 종언의 감각으로 살게 만든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점이 되었던 셈이다.<sup>21)</sup>

### Ⅲ. ‘분단’의 시작과 ‘전후’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이 한국문학사에서 ‘전후’를 도래시킨 사건은 다름 아닌 한국전쟁이었다.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나 아시아태평양전쟁과 분명히 구분되는 ‘전후’를 한국문학사에 가져왔는데, 한국전쟁에 따른 ‘전후’는 앞선 전쟁과 시간적으로도 그 차이를 드러내지만 문학적 사조에서도 그 차이를 뚜렷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예컨대 다음의 두 문학사에서는 한국의 ‘전후’와 ‘전후문학’의 맥락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며 서구 및 일본의 전후와 구분하고 있었다.

서구와 일본 사회에서는 전후파적 풍조가 2차 대전 후에 일어났다. 그러나 한국의 작가들에게는 남들이 가져다준 종전이 실감되지 않은 현상에서 마침내 6.25 전란을 겪게 되어 패허와 허무, 그리고 절망을 저마다

21) 서동주는 한국전쟁과 미일강화조약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후 일본의 담론이 미일강화조약에 집중되었던 것은 강화문제를 통해 냉전질서의 외부로 나가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고 분석한다. 다시 말해 한국전쟁이라는 이데올로기 전쟁에 개입하여 냉전 질서의 당사자로 존재하는 것보다 지배와 종속(강화문제)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일본이 마치 냉전 구도 자체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담론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다.(서동주, 「새로운 전쟁’과 일본 전후문학의 사상공간」, 『동방학지』 제157집, 2010, 28-29쪽.) 또한 남기정은 한국전쟁 당시의 일본 언론계는 한국전쟁과 일본과의 연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극력하게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국전쟁 담론은 특수와 정전을 이슈화하는 방식으로 흘러갔다고 지적한다. 즉 전쟁으로부터 일본을 외부화시키는 담론이 언론계를 지배했다고 보는 것이다.(남기정, 「일본 ‘전후 지식인’의 조선경험과 아시아인식-평화문제담화회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0집 4호, 2010, 70-74쪽.)

체험하게 된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전후파적인 경향의 드러남이다.<sup>22)</sup>

한국전쟁으로 시작된 1950년대는 해방과 좌우대립에 따른 혼란이 더 가중된 정신적 테러리즘의 시기였다. 1950년대의 작가들은 전통이 증발하고 폐허만이 남은 역사 속에서 어떤 전망도 가질 수 없었던 슬픈 시기를 보냈고 동족상잔이라는 트라우마를 안은 채 불구적 서사를 통해 내면서 서구의 전후문학에 대한 열등감에 시달렸다.<sup>23)</sup>

서구 및 일본 사회가 제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전후를 맞이한 것과는 달리 한국은 전후 혹은 해방을 다 음미하기도 전에 ‘동족상잔’, ‘골육상잔’으로 대변되는 한국전쟁을 경험하면서 전후에 새로운 전후가 덧씌워지게 된다. 게다가 새롭게 등장한 ‘전후’는 앞선 전쟁과는 달리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 민족 간에 살육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이는 뿌리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기고 말았다. 자연히 문학도 이념적 대립과 불신, 인간성의 상실 등을 담아내는 흐름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한국문학의 ‘전후파적인 경향’ 혹은 ‘불구적 서사’의 일면으로 해석되었고 심지어 그것은 ‘서구의 전후문학’에 대한 열등감의 발로로서 이해되기도 했다.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은 ‘전후’는 “타민족에게는 절망적이든 낙관적이든 또는 어떠한 인도주의를 표방하였든 끝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에 속할 수 있었지만 당사자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시대적 소명감에 물러설 수 없는 민족적 운명”<sup>24)</sup>으로서 “분단 소설의 계보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라는 점에서 중요”<sup>25)</sup>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는 2018년 7월 27일을 앞두고 남북한에서 종전 선언에 관한 여러 층위의 논의들이 제출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한국사회에서 분단을 사는 것과 그것을 문학적, 사상적 과제로 삼은 일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사안이자 과제이다. 그런데 이 분단 소설의 시작과 계보는 한국의 ‘전후’적 상황을 설명하고 나아가 일본과 서구의 ‘전후’와 구별 짓는 데 있어서 대단히 특별한 위치와 함의를

22) 엄창섭, 『한국현대문학사』, 새문社, 2002, 399쪽.

23) 신동욱 편저, 『한국현대문학사』, 집문당, 2004, 437쪽.

24) 엄창섭, 앞의 책, 396쪽.

25) 신동욱 편저, 앞의 책, 451쪽.

가지고 기능하고 있었다.

6.25를 다룬 우리 소설의 대부분은 전쟁의 압도적 압력에 휩쓸려 한갓 비극적 순간의 포착에 머무르거나 또는 설익은 고발이나 소박한 휴머니즘의 수준에 맴돌았으며 아니면 이념적 이분법의 틀에 갇혀 경색된 추상적 관념의 세계를 구성하는 데 그쳤다. [...] 전쟁의 참상은 휴머니즘을 일깨웠으며 반공 이데올로기를 무소불능의 절대적 준거로 정립시켰다. 이 시기 대부분의 소설은 이 두 개념항만으로 이해 가능할 정도인데 이로 인해 일상적 삶의 세계는 도외시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었다.<sup>26)</sup>

한국전쟁을 거친 후 한국문학은 남북 분단과 이념의 대립에 연관되는 사회주의 사상 문제를 문학의 소재로 취급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이념으로부터의 도피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의 전후문학은 전후 현실의 황폐성과 삶의 고통을 개인의식의 내면으로 끌어들이고 있지만,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정면으로 파헤치지 못한 채 정신적 위축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북한의 민족적 동질성에 대한 인식도 점차 흐려지고, 분단 자체를 당연시하는 의식도 생겨나고 있다. 한국전쟁의 상황과 그 후의 현실을 놓고 볼 때, 한국문학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적 상황에서 전쟁의 상처를 정신적으로 극복하고 문학이 그 자체로서 갖춰야 할 규범을 재정립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학적 과제와 함께 분단의 시대가 낳은 분단 문학이 이 시기부터 한국 현대문학사에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27)</sup>

한국현대문학사, 한국현대소설사를 대표하는 저작으로 자주 언급되는 위의 글들은 한국전쟁이 이분법적으로 이념을 양분하면서도 그것이 가지는

26)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354-355쪽.

27)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2』, 민음사, 2002, 104쪽. 권영민은 2010년에 발간한 저서 『한국현대문학의 이해』(태학사)에서도 비슷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는 “1950년의 6.25 전쟁은 한국의 남북 분단을 고정시켜 놓은 비극적인 계기가 되고 있으며 분단 상황 자체의 문제성이 전후의 한국 사회를 조건 지어 놓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문학은 6.25 전쟁을 겪은 후부터 심각한 이념적 분열을 드러낸 채 분단 논리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227-228쪽)고 말했는데, 이는 한국문학의 이념적 분열과 논리가 분단 상황에서 말미암은 것이라 보는 해석으로, 양자의 절대적인 연관성을 강조한 분석으로 읽힌다.

정치적, 이념적 허구성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고 말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가운데서 전쟁 후의 정신적 육체적 상처와 절망적 상황 등을 과제로 삼은 일종의 '분단문학'이라는 범주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 논의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해방 이후의 한국문학이 곧 전후문학이자 분단문학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말하자면 남북의 분단이란 해방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러한 상황은 한국전쟁에서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고착되어 문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인데, 이러한 한국적 의미의 전후문학은 "확실히 서구나 일본의 전후문학과는 공통되면서도 구별되지 않을 수 없는 특이성을 가지며, 이러한 개념들을 얼마나 탄력적, 창조적으로 고안, 활용할 수 있는가에 해방 이후 한국현대문학사 연구가 얼마나 내실을 다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또한 달려 있다"<sup>28)</sup>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전쟁이 또 다른 의미의 '전후'를 생성시켰고 그것이 소위 분단문학이라 불리는 한국적 전후문학 개념을 구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지적은 다분히 타당한 주장으로 들리며, 또한 한국전쟁 이후의 문학이 서구나 일본의 전후문학과 구분된다는 해석도 일면 납득이 가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목요연한 정리와 논리는 한국전쟁의 의미와 그 영향력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 제시된 도식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고, 특히 한국전쟁을 전후(前後)로 한 시기의 문학자들이 해방과 함께 찾아 온 '전후'와 한국전쟁 이후의 '전후'를 뚜렷하게 구분하거나 양자의 차이를 전략적으로 구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들 문학자들의 인식에서는 두 '전후'가 서로를 간섭하며 대단히 복잡하고 혼잡한 '전후'의 의미망을 구성하고 있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 글의 모두에서 소개한 권명아의 『식민지 이후를 사유하다-탈식민화와 재식민화의 경계』(책세상, 2009)나 한수영의 『전후문학을 다시 읽는다』(소명출판, 2015)에 자세하게 분석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박현수의 논고 「한국문학의 '전후' 개념의 형성과 그 성격」(『한국현대문학연구』 49집, 2016)도 앞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에서 '전후' 개념을 재검토하고 있다. 박현수는 한국 현대문학에서의 '전후' 개념은 처음에는 외국문학을 소개할 때 주로 쓰던 '외신용 개념'이자 '타자의 개념'이었지만 한국전쟁을 통과하면서 '한국전쟁 이후'라는 기의가 고정되고 말

28) 방민호, 「한국 전후문학 연구의 방법」, 『춘원연구학보』 제11호, 2017, 191-192쪽.

았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1950년대 후반에 전개되었던 김우중, 백철 등의 논의를 소개하면서 ‘전후’가 가지는 의미망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서구적 기의와 아시아태평양전쟁이라는 일본적 기의, 그리고 한국전쟁이라는 한국적 기의가 복합적으로 교차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1960년대 이후 고착화된 ‘한국전쟁 이후의 문학’이라는 전후 개념은 유용성의 측면에서도 실재성의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sup>29)</sup>

위에서 살펴본 바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우선 한국문학사와 관련된 저작에서 ‘전후’는 거의 대부분 한국전쟁 이후를 의미하는 것이 이미 대전제로 고착화되어 있고 그러한 바탕 위에 ‘분단문학’이라는 한국적 전후문학의 의미와 특징을 포착해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들 문학사는 식민지 시기와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을 뚜렷이 구분하여 역사적 사건들 사이의 절대적 간극을 강조하며 각 사건들과 문학적 영위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 ‘전후’ 담론에 대해 연구한 저서들은 ‘전후’라는 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파악하며 시간적 단절을 무화시키거나 이어붙이는 작업에 공을 들였고, 특히 2000년대에 발표된 성과는 자칫 정전으로 삼기 쉬운 문학사 기술을 상대화하며 ‘전후’라는 개념 자체를 의문시하거나 문제시하고 있었다. 전후문학사 기술과 전후문학 담론 연구 사이의 간극을 재검하는 일은 양자의 새로운 학문적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IV. 전후문학의 종언 이후에 다시 도래한 ‘전후’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전쟁은 일본에는 전후의 종언을, 한국에는 분단이라는 새로운 전후의 시작을 알려 주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분단의 현실과 문학이 전후 담론의 주요 준거로 작동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오늘날 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한편, 한국전쟁이 휴전을 맞이한 이후의 일본 사회에서는 ‘전후’가 완전히 종식되었다는 서사가 주를 이루었다. 그것은 일

29) 박현수, 앞의 글, 2016, 330쪽.



본 전후문학사도 마찬가지로었는데 쇼와(昭和) 30년대 즉 1950년대 중반의 분위기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었다.

쇼와 31(1956)년 2월, 나카노 요시오(中野好夫)는 「더 이상 '전후'가 아니다」(『문예춘추(文藝春秋)』)라는 글을 발표했고, 또 같은 해 8월에 잡지 『세계(世界)』는 「'전후'와의 결별(戦後への訣別)」을 특집으로 꾸몄다. 쇼와 30년대에는 국내에서는 다치카와(立川) 기지 확장을 둘러싼 스나가와(砂川)투쟁이 있었고 외교적으로는 미소교섭이 겨우 시작되는 시절이었지만 그럼에도 사회 전반적으로는 '전후는 끝났다'는 감각이 조금씩 번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문학에서도 이미 '전후파' 문학은 완전히 모습을 달리하고 있었다. 5년 사이에 발표된 전후파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 시이나 린조(椎名麟三)의 「아름다운 여자(美しい女)」(1955), 다케다 다이준의 「숲과 호수의 축제(森と湖のまつり)」(1955-1958), 미시마 유키오(三島由起夫)의 「금각사(金閣寺)」(1956)와 「교코의 집(鏡子の家)」(1959), 노마 히로시의 「주사위 하늘(さいころの空)」(1958-1959), 아베 고보(安部公房)의 「제4 간영기(第四間永期)」(1958-1959), 오오카 쇼헤이(大岡昇平)의 「화영(花影)」(1959-1959) 등을 들 수 있지만, 이미 이들은 한국전쟁이 종결된 즈음부터 조금씩 문학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다. 전쟁 중이나 전후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논리를 발견하려는 초기 작품의 시도는 없어지고 되찾은 일상 속에 그 논리를 위치 지우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후에 사사키 기이치(佐々木基一)로 하여금 『전후문학』은 환영이었다(「戦後文学」は幻影だった)(1962)는 말을 하게 만들었다. 말하자면 문단에서 전후파가 상대적으로 후퇴하고 제3의 신인도 더 이상 특징적 존재로 남아 있지 않았다.<sup>30)</sup>

다소 인용문이 길어졌지만 위의 글은 한국전쟁 이후의 문학의 흐름을 핵심적으로 잘 짚어주고 있다. 즉, 한국전쟁 이후의 일본 전후문학은 완전히 '전후와 결별'을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존재했던 전후문학조차도 '환영'으로만 남아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문학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바이기도 했는데, 혼다 슈고의 경우에도 역시 “한국전쟁에서 스탈린 비판(1956년)까지의 시기는 '전후'에서 '더 이상 전후가 아니다'

30) 古林尚·佐藤勝, 앞의 책, 106-107쪽.

는 시대로 점차 이행하는 시기였는데, 1954년부터 이미 후자 쪽으로 명료하게 기울어갔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전후문학’의 시기를 언제까지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만, 또 그리 중요한 문제도 아니지만, 운동으로서 전후문학이 존재한 것은 대체로 1950년경까지이고 그 이후는 보다 많은 전후파 작가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성숙의 시기를 보냈다”<sup>31)</sup>고 지적했다. 말하자면 혼다는 시대적 분위기로 보나 문학적 흐름으로 보나 1954년부터 이미 ‘더 이상 전후’가 아닌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주지하다시피 한국전쟁 이후의 일본은 자민당의 장기 집권과 비약적인 경제 성장으로 소위 55년 체제를 성립시키게 된다. 물론 미국의 종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일본은 국제적으로도 안정된 지위를 확보해 나가며 ‘전후’라는 용어는 심리적으로 사어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전후’란 용어가 쓰이게 된 것은 그 외에 적당한 명칭이 없었기 때문이며, 어떤 면에서는 1945년부터 약 10년간 이어진 전후의 여파가 그래도 잔영을 드리우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sup>32)</sup>

이렇게 ‘전후’는 마치 추억으로만 남은 존재처럼 서서히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갔지만 냉전의 종식과 함께 혹은 쇼와 시대(1926-1989)의 종막과 함께 다시 호출되었다. 이 시기에 ‘전후’가 재등장한 배경에는 1990년대 이후 아시아 각국에서 전개된 전쟁 책임론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데, 사회학자 오구마 에이지(小熊英二)의 말을 빌려 이에 관한 사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던 당시의 미국은 정치력으로 아시아 각 지역의 대일배상요구를 가로막고 있었다. 일본을 아시아의 반공 동맹국으로 성장시키려 하는 냉전의 논리에 기초해 볼 때 일본이 막대한 배상금을 짊어진다는 것은 미국에게도 결코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이 아시아 각국과 개별적으로 진행한 교섭에서는 배상 금액이 소액으로 한정지어지고 말았다. 게다가 필리핀, 한국, 남 베트남 등 1950년-1960년 사이에 일본이 교섭을 진행한 나라의 정권들은 친미독재정권인 경우가 많아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기에 용이한 상황이

31) 本多秋五, 앞의 책, 756-757쪽.

32) 小熊英二, 『<民主>と<愛国>—戦後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と公共性』, 新編社, 2002, 811-812쪽.

기도 했다. 혹여 민간에서 대일배상요구를 할라치면 이는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져 철저히 응징당하고 말았다. 그런데 1990년대에 접어들어 냉전 체제가 붕괴되고 미국의 정치적 장악력이 느슨해지자 아시아 각국에서는 전쟁 피해에 관한 논의가 재점화되기에 이르렀다.<sup>33)</sup> 다시 말해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일본은 아시아로부터 다시 '전후'를 직시하도록 요청 받게 되었던 것이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전후의 종언을 선언한 일본은 역설적이게도 아시아(한국)에 의해 다시 '전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등장한 가토 노리히로(加藤典洋)의 「패전후론(敗戰後論)」(『군상(群像)』 1995.1 이후 1997년에 단행본으로 발간)은 냉전 종식 이후의 일본적 전후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잘 보여준다. 국내에도 『사죄와 망언 사이에서』(서은혜 역, 창작과 비평사, 1998)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어 있기에 가토의 논리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정도 확보된 셈인데 그의 전후 인식은 다음에서 보듯이 '인격적 분열'에서 시작되는 것이었다.

우리가 살아왔고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전후'란 어떤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시대를 외관상 움직여온 틀을, 우리는 보통 보수와 혁신, 개헌과 호헌,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라는 식의 개념을 사용하여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들을 통해 전후라는 시대의 본질을 말할 수 있으리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이러한 개념들 자체가 시대의 산물, '작품'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전후라는 시대의 본질은 일본이라는 사회가 인격적으로 둘로 분열되어 있다는 데 있다.<sup>34)</sup>

우선 가토는 일본의 전후를 인격적으로 둘로 나누어진 병리적 특징을 가지는 시대로 정의했다. 아시아 각국에 대한 사죄와 망언이 반복되는 것은 전후 일본의 인격 분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결국 사죄 주체가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사죄 주체란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러 나라에 대해 사죄할 수 있는 주체, 즉 일본인이라는 주체를 말하는데, 이러한 주체의 결여에 따라 사죄와 망언은 매번 되풀이되

33) 같은 책, 814-815쪽.

34) 加藤典洋, 『敗戰後論』, 講談社, 1997, 46쪽.

고 있다. 사죄와 망언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라도 가토는 사죄의 주체가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았는데, 그는 자국의 전사자들에 대한 애도를 먼저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주체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아시아의 전사자들을 추도할 때 우리는 항상 침략자였던 자국의 삼백만 전사자들을 옆으로 제쳐둔다. [...] 삼백만에 이르는 자국의 전사자에 대한 애도를 통해서만 아시아의 이천만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길이 열리며 이를 통해 일본이 가지는 뒤틀림은 해결될 수 있다”<sup>35)</sup>는 이 문제적 발언은 “비정하리만큼 솔직한”<sup>36)</sup> 가토의 본심이자 동시에 전후 일본의 심정이기도 했을 터였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아시아 각국에 엄청난 파멸과 비극을 초래하기는 했지만 일본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삼백만의 일본인 전사자들의 죽음 자체만큼은 부정하고 싶지 않았던 전후 일본으로서는 가토의 제안을 통해 자국 전사자들을 애도할 수 있는 방법론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토는 사죄 주체를 조형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죄 주체 자체의 해체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즉 일본의 전사자들을 먼저 애도한 사죄 주체 일본인은 아시아의 피해자들에게 사죄함으로써 깨끗하게 해체된다는 것이다.<sup>37)</sup> 그러나 이러한 전후 청산의 방식은 새로운 내셔널리즘의 창출을 기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는 진보 진영 지식인들의 비판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고 한동안 가토의 전후 논의는 문단에서 뜨거운 설전을 불러일으켰다.

위에서 가토의 전후 인식을 검토한 이유는 그의 주장이 전후일본문학사 해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패전후론』에서 그는 ‘전후문학’과 ‘무뢰파(無頼派)’를 대비적인 구도 하에 놓고서 자신이 발견한 ‘뒤틀림’의 구조로 전후문학을 재맥락화한다. 기존의 문학사에서는 아라 마사히토 및 히라노 겐으로 대변되는 『근대문학』파와 나카노 시게하루로 대표되는 『신일본문학』파를 대척점에 두고 전후문학의 구도를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전자가 정치로부터 문학(예술)이 독립할 것과 작가의 주체성 확보 등을 주장했다면 후자는 전전의 프롤레타리아 문학 운동의 계보를 이어 여전

35) 같은 책, 76쪽, 86쪽.

36) テッサ・モリス＝スズキ, 不穏な墓標-「悼み」の政治学と「対抗」記念碑: 加藤典洋『敗戦後論』を読む 『世界 別冊』第655巻, 1998. 11., 岩波書店, 35쪽.

37) 加藤典洋, 앞의 책, 53쪽.

히 문학 운동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 지향점을 두고 있어 양자는 전후 일본문학 장에서 대비적 구도를 제시하며 '정치와 문학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런데 가토의 경우에는 정치와 문학이라는 구도 대신 '뒤틀림'의 유무로 양자를 구분하고자 했다. 그가 보기에 아라 마사히로나 히라노 겐 등에게는 헌법 혹은 천황에 대한 '뒤틀림'이 보이지 않는 반면 나카노 시게하루에게는 이에 대한 '뒤틀림'이 관찰되며 그러한 점에서 나카노 시게하루는 다자이 오사무(太宰治)와 같은 무뢰파 작가들과 오히려 가까운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가토는 나카노 시게하루와 다자이 오사무가 패전 직후에 발표한 작품들 속에 천황이 언급된 있는 부분을 인용하며<sup>38)</sup> 이들 작가가 천황 신봉과는 거리가 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작품 속에 천황을 등장시킨 이유는 작가들이 전후 일본의 '뒤틀림'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는 1945년 9월 27일 쇼와 천황이 맥아더 원수를 방문했을 때 촬영한 사진을 거론하며 "맥아더 옆에 마치 전학 온 학생처럼 직립부동의 자세로 서" 있는 천황의 모습이란 뒤틀린 전후 일본의 상징에 다름 아닌데 이에 대해 "천황 개인에 대한 동정"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한 나카노 시게하루나 "천황폐하 만세!"라고 외쳐 보이는 다자이 오사무의 천황 찬미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정확하게 전후 일본의 뒤틀림을 인지하고 전경화시킨 사례로 꼽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인격 분열의 전후 일본을 직시하고 그로 인해 배태된 뒤틀림을 천황 찬미라는 방식으로 해소해 보인 문학자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놓으며 가토는 전전의 프롤레타리아문학이라든지 전후문학이라든지 무뢰파라든지 하는 구분 자체가 더 이상 무효하다고 단언해 버리고 만다.<sup>39)</sup>

38) 나는 천황 개인에 대해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가엾다는 느낌이 항상 먼저 앞선다. [...] 나는 공산당이 천황 개인에 대한 인종적 동포감각을 어디까지 가지고 있는지 진심으로 알고 싶었다.(나카노 시게하루, 「다섯 잔의 술(五勺の酒)」(1947.1) 일부.)  
 “뭘, 뭘라고 외쳐야 하지요?” / 당황해서 물었다. / “잘 알고 있잖아!” 에치고 시시(越後獅子)는 고쳐 앉고서는 “천황폐하 만세! 이렇게 외치는 거지. 어째까지는 피로웠지만 오늘부터는 가장 새로운 자유 사상이 시작되다고!” (다자이 오사무, 「판도라의 상자(パンドラの匣)」(1945.20-1946.1) 일부.)

39) 가토 노리히로의 전후 인식 방법론 및 전후민주주의와 관련된 논문으로는 이경희의 「가토 노리히로의 「전후후론」(1996) 재고-‘문학’은 어디까지 가능한가」(『日

냉전의 종식 이후에 가토가 전개시킨 전후문학의 논의가 얼마만큼 획기적으로 전후문학 담론의 지형도를 바꾸어 놓았는가 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그의 논의 자체는 냉전 이전의 전후문학 담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모든 전쟁의 잔영과 결별을 고하며 ‘전후 일본’이 아닌 ‘일본’을 조형하려 했던 전후문학 담론처럼 가토가 재점화시킨 전후 논의 역시 ‘뒤틀림’을 안고 있는 ‘전후 일본’을 그저 ‘일본’으로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후’의 종언이 거듭 선언되는 가운데 과연 한국과 일본의 문학사에서 ‘전후’는 상호 교호할 수 있을까.

## V. 횡단하는 ‘전후’의 (불)가능성\_결론을 대신하여

흥미롭게도 가토 노리히로의 ‘패전후론’이 잡지에 발표되던 같은 시기에 문예평론가이자 문학연구자인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는 『전후문학을 묻는다(戦後文学を問う)』(岩波新書, 1995)라는 제목의 저서를 발간한다. 이 책은 전쟁의 종결과 안보투쟁, 그리고 이후에 전개된 베트남전쟁과 문화과의 상관을 다루는 한편, 성에 대한 관념의 변화와 보편화되기 시작한 미국 문화의 문학적 반영을 분석하고 있으며 전후일본의 타자라 볼 수 있는 제일 조선인 문학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전쟁”이 끝났다”는 제목의 서장에서 시작하여 “전후문학”이 끝났다”는 제목의 종장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이 책에서 저자는 역설적으로 ‘전후’ 및 ‘전후문학’이 일본에서 끝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가와무라는 일본에서 ‘전후’가 종언되기 위해서는 전쟁으로 인해 숨진 아시아의 수많은 망령들을 재대로 기억하고 애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전후’의 종언은 도래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새로운 문학도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 진단한다.

지금까지 ‘전후문학은 끝났다’라는 단언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 그러나 ‘전후문학’이 끝났다고 시원하게 선언하기에는 우리 문학은 여전

---

本學報』 제110권, 2017)와 역시 이경희의 「어느 전공투세대의 민주주의론-가토 노리히로의 전후론을 중심으로」(『일본학연구』 제54집, 2018)가 있다.

히 '전후'의 그림자에 뒤덮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를 '전후'의 '망령'이라 불리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는 일본이나 해외의 산과 골짜기, 강과 바다, 숲과 마을 등에서 죽은 사람들을 제대로 묻어주고 애도해 준 적이 있는가. 일본인뿐만 아니라 적군이거나 아군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적군도 아군도 아니었던 사람들의 '망령'은 여전히 '전후문학' 주변을 떠도는 것은 아닐까. [...] '전쟁은 끝났다' '전후문학은 끝났다'는 많은 단언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는 아직도 '전후'가 끝나는 걸 허락하지 않는 '망령'들이 많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 현대의 '새로운 문학'이 '고립'되어 있는 것은 아시아 혹은 국제사회의 현실로부터의 고립이며 이것은 전쟁의 '망령'을 성불(成佛)시키지 못한 일본의 '전후'에서 비롯된 것이다. [...] 일본인뿐만 아니라 근린 아시아의 '망령'들의 혼의 행방에도 우리가 관심을 둘 때, 비로소 일본은 '전후'를 끝낼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전후문학'은 그 종언을 맞이하고 일본의 '새로운 문학'이 출발하게 될 것이다.<sup>40)</sup>

일본인뿐만 아니라 전쟁과 결부된 수많은 사자들의 망령은 일본으로 하여금 여전히 '전후'를 살게 하고 있으며, 그러한 망령을 도외시하거나 은폐하는 일은 결국 일본의 고립을 초래할 뿐이기에 근린 아시아의 '망령'들의 혼을 깊이 애도하는 길을 통해 새로운 일본의 출발점을 모색하자는 가와무라의 제안은 아시아의 전사자들을 먼저 애도하기보다 삼백만의 일본인 희생자를 우선적으로 애도하여 제대로 된 주체를 만들자는 가토의 제안과 지극히 대비되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 '전후' 혹은 '전후문학'의 재검토를 둘러싼 두 평론가의 상반된 주장이 1995년에 동시에 등장한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가와무라 미나토의 정리를 빌리자면 1945년부터 1990년대 전반까지의 약 50년간은 '전후'라는 용어가 사용된 '전후시대'이며 그 동안에 쓰인 문학을 '전후문학'이라 범주화할 수 있는데<sup>41)</sup>, 두 평론가는 소위 '전후'가 끝났다고 여겨지는 시점인 1995년에 각자 전후시대와 전후문학을 총괄하고 전후 이후의 시대 및 문학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보자면, 두 사람의 주장은 현대 일본 사회에

40) 川村湊, 『戦後文学を問う』, 岩波新書, 1995, 233-237쪽. 이 책은 한국에서 『전후문학을 묻는다』(가와무라 미나토 저, 유숙자 역, 小花, 2005)라는 제목으로 번역 발간되었다. 해당 인용문은 번역서 207-210쪽 참조.

41) 같은 책, 208쪽.

서 서로 비판적으로 견제하며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다기보다는 가토의 주장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다.<sup>42)</sup>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일본 사회의 우경화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 일본’을 만들기 위한 헌법 개정 논의를 점화시켰고, 이러한 일본 사회의 쟁점은 결국 ‘전후’의 향방을 어디로 귀결시킬 것인가를 대변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사실 ‘전후’를 일국사 안에 환원시켜 그 의미를 규정하는 것은 일본에만 국한되는 현상은 아니다. 전후 일본이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하여 전후의 종언을 선언하며 한시라도 빨리 전쟁 자체에 대한 청산을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식민지적 과거와의 단절을 당면 과제로 설정하면서 문학에 남아있기 마련인 식민지적 상황 자체를 감추거나 도려내는 시도들을 거듭해 왔다. 특히나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전후’ 논의는 한국전쟁이라는 특정한 시간과 사건을 중심으로 주류 담론을 형성해 왔고 이는 서구나 일본의 전후와 구분 짓는 역할을 수행하며 ‘분단문학’이라는 범주를 낳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한국전쟁은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전후 종식과 전후 시발이라는 엇갈린 방향성을 추동시켰고 그러한 가운데 양자는 서로 다른 의미의 ‘전후’를 상상하며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국이 전경화시킨 ‘전후’란 양국의 서사 전략 혹은 담론의 정치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것으로, 양국이 ‘전후’ 담론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과제가 무엇이었는가를 재점검해 본다면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져 버린 서로 다른 두 ‘전후’의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은 당장에 노정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 글에서 여러 번 언급한 혼다 슈고는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 격전의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채로 요코스카(横須賀) 선 화물열차에 어마어마하게 실려 오는 군용 트럭이나 지프차, 전차를 나는 매일

42) 예컨대 2015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이 발표한 전후 70년 담화문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잘 대변하고 있다. 당시의 담화문에서 아베 수상은 열강들의 식민지 경제를 블록화하면서 일본이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쟁이라는 무력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식민지 지배와 침략, 반성과 사죄에 대한 언급은 최소화되었고 담화 내용은 추상적인 미래지향적 목표 제시로만 점철되고 말았다.



같이 보고 있었다. [...] 조선 민중들 머리 위로 비처럼 포탄을 쏟아 붓는 비행기가 일본의 기지에서 매일 날아가고 있던 것을 몰랐던 건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의 나는 부끄럽게도 그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았다”<sup>43)</sup>고 뒤늦게 고백해 보인 바 있다. 말하자면 그는 같은 책에서 한국전쟁과 전후일본이 밀접하게 연루되어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과 한국전쟁을 일본의 전후의 종언이라 믿었던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셈인데, 이는 혼다의 모순된 증언이라기보다 그가 어떤 전후를 구상하고 욕망했는가에 따라 한국전쟁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음을 대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문학사에서도 한국전쟁의 역할을 제한시켜 민족이든 국민이든 동일성의 신화를 구축하는데 소비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전후’에 내재된 이데올로기의 해체는 일국사, 일국 문학사에서 ‘전후’를 해방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며 한일문학사에서의 ‘전후’ 인식 검토와 교호 가능성의 탐색도 바로 그러한 작업의 일단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

43) 本多秋五, 앞의 책, 525쪽.

## ■ 참고문헌

- 가와무라 미나토, 『전후문학을 묻는다』, 유숙자 역, 小花, 2005.
- 권명아, 『식민지 이후를 사유하다-탈식민화와 재식민화의 경계』, 책세상, 2009.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2』, 민음사, 2002.
-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 남기정, 「일본 ‘전후 지식인’의 조선경험과 아시아인식-평화문제담화회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0집 4호, 2010.
- 남상욱, 「전후 일본문학 속의 ‘한국전쟁’-한국전쟁과 전후 일본의 내셔널 아이덴티티」, 『비교한국학』 23권 1호, 2015.
- 박현수, 「한국문학의 ‘전후’ 개념의 형성과 그 성격」, 『한국현대문학연구』 제49집, 2016.
- 방민호, 「한국 전후문학 연구의 방법」, 『춘원연구학보』 제11호, 2017.
- 서동주, 「‘새로운 전쟁’과 일본 전후문학의 사상공간」, 『동방학지』 제157집, 2010.
- 신동욱 편저, 『한국현대문학사』, 집문당, 2004.
- 엄창섭, 『한국현대문학사』, 새문社, 2002.
- 이경희, 「가토 노리히로의 「전후후론」(1996) 재고-‘문학’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日本學報』 제110권, 2017.
- \_\_\_\_\_, 「어느 전공투세대의 민주주의론-가토 노리히로의 전후론을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제54집, 2018.
- 조정민, 『만들어진 점령서사』, 산지니, 2009.
- 한수영, 『한국 현대비평의 이념과 성격』, 국학자료원, 2000.
- \_\_\_\_\_, 『전후문학을 다시 읽는다』, 소명출판, 2015.
- 호쇼 마사오 외, 『일본현대문학사 상』, 고재석 역, 문학과 지성사, 1998.
- 小熊英二, 『<民主>と<愛国>-戦後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と公共性』, 新曜社, 2002.
- 加藤典洋, 『敗戦後論』, 講談社, 1997.
- 川村湊, 『戦後文学を問う』, 岩波新書, 1995.

- テッサ・モリス＝スズキ, 不穏な墓標-「悼み」の政治学と「対抗」記念碑:  
加藤典洋『敗戦後論を読む』『世界 別冊』第655巻, 1998.
- 平野謙, 『昭和文学史』, 筑摩書房, 1963.
- 古林尚・佐藤勝, 『戦後の文学-現代文学史』, 有斐閣, 1978.
- 本多秋五・森有正・日高六郎・佐々木基一・野間宏・関根弘・亀島貞夫・  
荒正人, 「座談会-現代と知識人」, 『近代文學』No.42, 1950.
- 本多秋五・安部公房・梅崎春生・佐々木基一・野間宏・椎名麟三・荒正人・  
平野謙, 「座談会-戦後文学の総決算」, 『近代文学』第8巻 第1号,  
1953.
- 本多秋五, 『物語 戦後文学史』, 新潮社, 1966.
- 松原新一・磯田光一・秋山駿, 『戦後日本文学史・年表-現代の文学 別巻』,  
講談社, 1978.

❖ ABSTRACT

Comparison of Perceptions on ‘Postwar’ Betwee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and  
the History of Japanese Literature

Cho, Jung-min

This paper comparatively considered how Korea and Japan address the concept of ‘postwar’ in descriptions of their literary history. In Japan, ‘postwar’ refers to the period after World War II (Asia-Pacific War). This word implies a variety of contexts such as collapse, poverty, confusion, calendar reform, reconstruction and restoration as well as a series of historical events such as war, war defeat, and American occupation; and so it has been treated in Japanese society a significant period.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it is after national liberation that the word ‘postwar’ appeared; however, it has usually indicated ‘the period after the Korean War.’ The question is that although the term of postwar refers to periods after different wars, Koreans used the term of postwar also in the same way as Japan, and their concept of postwar overlaps with the concept of prewar or postwar used in Japan, and accordingly, side effects are produced that fail to grasp properly the independent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the Korean War.

In conclusion, the Korean War brought about contrasting effects on the history of Korean and Japanese literature. While the Korean War meant a start after the war in Korean literature, it became a turning point marking the end of postwar in Japanese literature. Such different perceptions on postwar also have major implications in that perceptions represent postwar discourses in today’s Korea and Japan.

Key Words : Asia-Pacific war, Korean war, post-war,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history of Japanese literature

■ 논문접수일 : 2018. 08. 10

■ 심사완료일 : 2018. 08. 31

■ 게재확정일 : 2018. 09. 03

